

◆ 일본 미쓰비시 상사, 미 네바다주에 가스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 계획 중

일본 미쓰비시 상사의 미국내 전력사업 부문 자회사인 다이아몬드 제너레이팅은 네바다주 남부에 가스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검토중이다. 총 투자액이 3억 5,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동 프로젝트는 네바다주 굿스프링(Goodesprings) 근교에 출력 500MW의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밴과 에너지 센터(Ivanpah Energy Center)로 명명된 동 발전소는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3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엔론社 부도 이후 가스가격의 하락에 따른 전력요금 하락 등의 여파로 인해 다수의 독립발전사업자(IPP)들이 계획 혹은 추진중인 발전소 건설사업을 속속 연기하고 있다. 네바다주에서도 2001년 5월에 비해 전력요금이 80% 하락하는 등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태이므로, 동 프로젝트의 추진도 전력 수급관계 및 시장상황의 움직임 등에 따라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金 廷 勳】